■ 민족문화연구 제79호(2018.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95-222.

이중환의 『택리지』 개정과 이본의 형성

안대회*

목 차

1. 머리말
2. 『택리지』 초고본의 확인과 개정한 사실의 발견
3. 초고본의 조사와 특징
4. 개정본의 변화와 특징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李重煥(1690-1755)의 명저 『擇里志』가 1751년에 완성되었다는 학계의 정론에 의문을 품고 저자가 사망한 1756년 이전 어느 시점까지 초고본의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본을 만들었다는 입론을 세웠다. 개정본 저술의 가능성을 이익이 친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먼저 확인하였다.

이어서 수십 종에 이르는 다양한 이본의 교감을 통해 필사자의 개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텍스트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일관된 질서를 찾아냈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텍스트에 존재하는 큰 차이를 제시하였다. 초고본과 개정본으로 분류한 이본군에서 명백한 차이를 제시하고 분석한 결과, 적지 않은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고 저자가 직접 개정했다는 가설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개정을 통해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논리가 정연하며, 풍수설이나 지리 현상의 자세한 설명을 줄이는 대신 인문적 요소가 더 풍부하고, 서술이 합리적이도

*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록 바뀐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현재 150종으로 확인한 많은 이본 텍스트에서 발생한 근본적인 차이는 실제로는 초고본과 개정본의 轉寫에서 발생했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논문에서 주장한 가설과 입증한 내용은 『택리지』의 텍스트 구조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관련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이중환, 『택리지』, 초고본, 개정본, 이본 교감.

1. 머리말

조선 후기 인문지리학의 명저 『擇里志』는 李重煥(1690-1755)이 1751년에 저술했고, 저술 이후 많은 필사자에 의해 자구와 내용이 수정된 수많은 사본이 출현하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본의 수량만 해도 150종 이상을 웃돈다.[1] 그러나 필자가 수많은 이본 가운데 주요한 이본 30여 종의 본문을 교감하여[2] 각 이본 사이에 있는 구체적 차이를 찾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와 같은 정설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결론은 이중환이 1751년에 초고본을 일차 완성하여 星湖 李瀷에게 서문을 구한 뒤, 친밀한 지인들이 『택리지』에 제기한 많은 의견을 채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보완하여 사망한 해인 1756년 이전 어느 시점까지 개정본을 만들었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초고본을 이익에게 보여준 이후 『택리지』는 저자가 통제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필사되어 세상에 퍼졌다. 먼저 세상에 나간 초고본과 그 뒤에 저자가 개정한 개정본 두 가지 계통의 사본은 숱한 傳寫 과정을 거치면서 차이가 큰 이본군을 형성하였다. 서로 다른 계통의 사본이 傳寫를 거듭하고, 게다가 필사자의 개별적 수정과 誤記까지 거듭되면서 『택리지』는 이본마다 차이가 꽤 많은 저술로 독서계를 풍미하였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택리지』 이본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텍스트의 구체적 차이를 명료하게 밝히지 못했다.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1) 이도훈·김세호·임영길, 「『擇里志』 異本考」, 『대동문화연구』 제9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99-134면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130종의 이본을 조사하여 제시하였고, 그 이후 20종 내외의 이본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2) 집중적으로 텍스트를 교감한 이본과 그 약호를 뒤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다. 필자는 몇 년 동안 대표적인 이본을 중심으로 교감작업을 수행하였다.[3] 그 결과 수많은『택리지』이본의 차이를 발생시킨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초고본과 개정본이 존재하고, 그 두 가지 상이한 텍스트가 조선 후기 독자들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혼란스럽게 전사되어 이본 사이의 혼란을 낳았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초고본과 개정본의 존재는『택리지』텍스트의 구조를 이해하는 관건의 하나라고 판단한다.

이 논문은 이중환이『택리지』를 저술한 이후 개정본을 만들었고, 초고본과 개정본이 뒤섞여 독자들에게 전사되고 유통되었다는 새로운 입론을 세우고, 그 입론에 근거하여 방대한 이본의 형성과정과 이본 텍스트 사이의 큰 특징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장과 분석을 통해『택리지』의 텍스트를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택리지』초고본의 확인과 개정한 사실의 발견

근대적 학술이 전개된 20세기 이후『택리지』를 읽고 연구할 때 거의 예외없이 崔南善이 1912년에 간행한 〈광문회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그에 앞서 1910년에 朝鮮古書刊行會에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도 〈광문회본〉과 큰 차이가 없고 기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국내외에서 번역된『택리지』의 저본이 예외없이 모두 〈광문회본〉이라는 사실은 권위를 인정받는 판본임을 방증하고, 나아가 독서계와 학계에 통용되는 거의 유일한 판본임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광문회본〉을 벗어나 다른 이본을 접하게 되면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다. 〈광문회본〉의 체제와 다른 이본의 수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광문회본〉과 비슷하기는커녕 차이가 나는 이본이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택리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문회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문회본〉은 많은 이본의 하나로 무시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택리지』연구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

3) 필자는 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생들과 함께『擇里志』정본 작업을 몇 년 동안 진행하고 그 결과물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본고에서 대본으로 사용하는 저본은 그 작업의 결과물이다.

러나 지금까지 이본에 주목한 연구자는 〈광문회본〉의 무시가 아니라 그와는 다른 이본의 존재를 찾고자 하였다. 그 문제의식에서 『택리지』의 초기본을 찾고, 계열을 구분하려 하였다.

먼저 배우성은 〈광문회본〉 위주의 『택리지』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50여 종의 이본을 조사하였다. 〈광문회본〉을 표준형으로 인정하고, 이본을 비교하여 『택리지』 초기본으로 '卜居說' 계열과 '士大夫可居處' 계열의 두 계열을 제시하였다.[4] 최인실은 이본 92종을 32종의 서명으로 구분하고, 『택리지』 초기 필사본을 추정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하였다. 몇몇 이본의 필사연도를 추정하고, 구체적으로 동국대 소장 『擇里志』는 1796년에, 연세대 소장 『東國八域志』는 1792년에, 연세대 소장 『稗林』 내 『擇里誌』는 1751-2년 사이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하였다.[5] 배우성의 논문은 『택리지』 이본조사가 필요함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점에, 최인실의 논문은 초기본의 실물을 구체적으로 추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두 편의 논문은 서명, 서발, 목차 등 외형의 차이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추정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이를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밀한 교감을 통해서 이본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이를 밝혀내어야만 외형적 차이가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배우성은 '卜居型'을 초기본으로 추정하였으나 그의 결론은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세 번째로 이도훈·김세호·임영길의 논문은 이본을 6개의 계열로 나누어 보았다. 필자와 함께 교감작업을 함께 한 연구자들은 書名과 목차, 序跋(부록), 원문의 네 가지 기준으로 이본을 분석하여 '초기본 추정' 계열, '序跋과 『星湖僿說』 수록' 계열, '東國山水論' 계열, '雙行註와 考證 附記' 계열, '總話' 계열, '기타' 계열의 6개 계열로 정리하였다. 이 논문은 이본을 보는 관점을 다양화하여 그에 따라 이본의 차이를 부각하였고, 특히 텍스트의 교감을 거쳐서 이전보다 더 실질적인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에 따

4) 배우성, 「擇里志에 대한 역사학적 讀法: 필사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33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 213-246면.

5) 최인실, 「『택리지』 초기 필사본 추정을 위한 서지적 고찰」, 『서지학보』 제40호, 한국서지학회, 2012, 155-174면.

라 초기본이라고 판단한 4개의 이본과 기타 이본을 제시한 점과 4개의 구체적 차이를 확인한 것은 성과이다. 초기본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에서는 성과가 크지만 앞선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본의 외형적 특징에 얽매인 점은 비슷하여 전체 이본을 관통하는 차이점과 초기본의 연대와 이본 사이의 핵심적 차이점을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50종이 넘는『택리지』이본의 차이와 계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글자나 문구의 차이, 서문과 발문의 유무, 필사자의 시각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첨가나 삭제 등 세부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텍스트의 차이, 이본의 계열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자칫하면 나무만을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택리지』는 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많아 커다란 변화를 포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본의 큰 줄기를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본을 관통하는 차이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과 시각을 제시하면, 필자는『택리지』의 초고본과 개정본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따라 이본은 크게 초고본 계통과 개정본 계통, 그리고『東國山水錄』계통의 세 가지 계통을 설정하였다.[6] 여기서 먼저 초고본을 그동안 언급된 초기본과는 구분한다. 초기본이 이중환의 저작이 세상에 등장한 초기의 필사본이라면, 초고본은 이중환이 처음 세상에 공개한 원고로서 그 뒤에 그 원고를 개정했다는 전제하에 설정한 판본이다. 초고본과 초기본이 겹칠 수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택리지』를 볼 때 초고본과 개정본의 문제를 제기한 연구자는 없었으나 필자는 이중환 본인에 의한 개정본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먼저 이중환이 초고본을 완성한 이후 개정본을 직접 만들었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이중환이『택리지』초고를 완성한 것은 아무리 늦어도 신미년(1751) 4월 이전이다.『士大夫可居處』란 이름의 초고본이 완성된 사실은 그해 4월 초순에 직접 쓴 발문이 입증한다. 이후 이중환은 李

6) 안대회,「『택리지』의 篇目과 이본 계통의 형성」,『동방학지』제183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 출판 예정.『택리지』의 편목과 구성, 그리고 이본의 계통은 이 논문에서 논의한 바를 따랐다.

瀷(1579-1624)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서문과 발문을 받았다. 1751년 여름부터 1753년 초여름 사이에 서발문이 쓰였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751년 5월(이익), 1752년 4월(목성관), 1752년 11월(목회경), 1753년 3월(정언유, 이봉환)이다. 이들과는 성격이 다른 인물 두 명도 발문을 썼다. 남인 관료로 충청도 천안에 거주하다가 1752년에 사망한 洪重寅(1677-1752)은 1751년과 1752년 사이에 발문을 썼고, 또 남인 지식인으로 경상도 구미에 살았던 洪龜範(1691-1762) 역시 발문을 썼다.[7]

이익은 분명히 이중환으로부터 서문을 부탁받아 썼으나 나머지 친지들은 서발문 내용만으로는 이중환이 부탁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중환의 청탁이 있든 없든 한두 해 사이에 지인과 안면이 없는 인물들까지 2편의 서문에 5편의 발문을 썼다. 폭발적인 반응이 아닐 수 없다. 간행도 되지 않은 책이 날개가 돋친 듯 지식인들 사이에 퍼져 홍중인은 누구의 저작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편저 『鵝州雜錄』에 초록하여 편입하면서 발문을 썼고, 홍귀범도 책을 보고 발문을 썼다. 이 문제작에 쏠린 당시 사대부의 관심과 반향이 어떤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8]

그와 같은 폭발적 관심과 반향은 책을 읽은 지식인들로부터 『士大夫可居處』란 서명의 개정을 비롯하여 『택리지』의 저술 동기에 대한 不同意,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찬성과 불만, 오류의 지적과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그 반향의 실태를 여러 편의 발문이 선명하게 보여준다. 다수의 발문은 사대부가 살 곳이 없어 다른 좋은 거주지를 선택하려 한다는 저술 동기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다.[9] 『택리지』는 명확하게 현실 부정의 태도를 바탕에 깔고 있었고, 체제부정의 시선까지 내포한 것임을 지식인들은 놓치지 않았다. “살 땅이 없다는 靑華子의 말도 사사로움[私] 한 글자에

7) 임영걸, 「조선 후기 『擇里志』 읽기 방식—서발문 및 관련 저작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17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265-290면. 이 논문에서 홍귀범의 발문이 처음 소개되었다.

8) 黃胤錫의 『頤齋亂藁』에는 『택리지』를 접한 지식인들의 초창기 반응이 흥미롭게 실려있다. 배우성, 앞의 글에 소개되어 있다.

9) 안대회, 「『擇里志』와 조선 후기 지방 이해의 혁신—浮浪하는 존재의 移住와 定住—」, 『한국한문학연구』 제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69-102면.

서 벗어나지 못했다"[10]라고 지적한 홍귀범의 말은 하나의 실례이다. 그중에서『士大夫可居處』란 책명을『택리지』로 수정한 사실은 널리 알려졌고, 그 제안은 저자에게 흔쾌히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지식인이 제기한 불만과 수정요구에 대한 이중환의 반응은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런데 李瀷이 친지에게 1752년 7월에 쓴 편지에는 그 무렵『택리지』를 두고 친지 사이에 오간 의견이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몸을 조섭하여 건강하다 하니 축하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저는 한 눈이 멀고 다리를 저니 병든 꼬락서니가 우습기만 합니다. 상복을 벌써 벗고서 그냥 깊은 방에서 고아가 된 손자와 마주 앉아 있기나 하니 어떤 심경일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몇 권의 책을 삼가 받아서 놓아두었습니다. 이런 종류는 어느 것이나 볼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중 한 권은 우리 집안사람이 지은 것으로 저번에 여러 사람이 서문을 짓고 그 표제를 바꿔서 '택리지'라 하였고, 또 착오가 있는 10여 군데를 가져다 고쳐서 선택하여 덜어내고 바로잡게 하였습니다. 그가 믿고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신년(1752) 7월 27일 아우 이익 씀.[11]

상복을 벗었다는 것은 전년에 죽은 맏아들 李孟休의 상복을 벗었다는 말이다. 고아가 된 손자는「擇里志序」에서 언급한 李九煥(1731-1784)이다. 이 글에서 여러 사람이 서문을 썼다는 말은 현재 남아있는 서발문을 가리키고,『士大夫可居處』란 책의 제목을『擇里志』로 바꾸어 제시했다는 것도 사실에 부합한다. 더 주목할 점은 여러 사람이『택리지』의 착오를 십여 군데 지적하여 이중환이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다는 말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고치기를 바란 착오가 무엇이었고, 이중환이 과연 채택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중환의 초고가 나오고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동시에 내용에 대한 불만과 수정의 필요성이 가까운 사람들

---

10) 洪龜範,「觀擇里志書示兒輩」,『闊岸集』권3, 한국역대문집총서 2429책. "靑華子無處可居之說, 亦不能擺脫私字."

11) 李瀷. "調侯增重, 賀幸難勝. 瀷眇視跛屐, 瘡狀可笑. 期衰已除, 只有孤孫相對於深屋中, 懷緖可知. 數卷書謹受姑留, 此類都不無觀也. 其中一弓, 是吾家人所著, 向者諸家作序, 改其標題爲擇里志, 又取其錯誤十餘改, 擇有刪正. 未知渠信受否耳. (…) 壬申 7月 27日 友弟瀷." 金約瑟,「星湖手寫本 擇里誌에 대하여」,『국회도서관보』제5권 4호, 국회도서관, 1968, 69-75면에서 재인용.

에게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중환은 여러 사람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편지가 이중환이 개정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는 않으나 저술 수정의 요구가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는 충분하다. 여기서 언급한 10여 군데가 단순한 사실의 오류라면 저자가 수용할지 의문을 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술의 방향이나 지역의 평가 문제, 사색당파의 구도를 포함한 심각한 수정안을 포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예컨대, 근기 남인의 핵심 가문 출신 지식인인 李克誠이 1773년 무렵 저술한『螢雪記聞』에서「人心」조항을 인용하고『海東雜記』라는 다른 야사의 당론과 비교하여 서술하고서 당파가 갈린 과정을 해석하는 이중환의 시각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2] 그의 지적은 간단한 수정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이익의 사위이기도 하므로 편지에 나타난 이익이나 주변 친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편지를 보면 이중환이 주변 지식인의 권유와 자신의 자발적 필요성에 따라 초고를 개정할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망한 1756년 이전 어느 시점까지 이중환은 제기된 착오와 서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수정을 가하여 개정본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중환 스스로가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택리지』이본에는 분명히 이중환이 개정본을 만들었다는 입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제 실제로 초고본과 개정본의 차이가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텍스트를 비교하여 개정한 사실의 여부를 확인해본다. 다음은「卜居論·地理」항목에 실린 내용이다.

초고본: 〈잠옹본〉

산은 반드시 근본을 얻어 물과 잘 배합된 뒤에야 생성과 化育의 오묘함을 다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흘러오고 흘러감이 이치에 맞은 뒤에라야 비로소 정기를 모아 인재를 훌륭하게 기르는 吉함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堪輿

12) 李克誠 저, 장유승 외 역,『螢雪記聞』, 성균관대 출판부, 2016, 158-161면.

家의 定論을 한결같이 따라서 집터의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물은 모름지기 바른 五行과 雙山五行으로 빠지게 하고, 집터의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물은 다만 참된 오행으로 빠지게 한다. 주택의 坐向은 또 모름지기 흘러오는 물과 더불어 淨陰 淨陽의 방법과 부합하여야 비로소 순수하게 좋다.13)

개정본: 〈덕유본〉

무릇 물이 없는 땅은 본래 살 수 없는 곳이다. 산은 반드시 근본을 얻어 물과 잘 배합된 뒤에야 생성과 化育의 오묘함을 다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흘러오고 흘러감이 이치에 맞은 뒤에라야 정기를 모아 인재를 훌륭하게 기르는 길함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다룬 감여가의 책이 있으므로 굳이 자세하게 논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집터는 묘지와는 다르다. 물은 재물을 주관하므로 큰 물가에 부잣집과 이름난 마을, 번성한 촌락이 많다. 비록 산속이라도 또한 시냇물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대를 이어 오랫동안 살 만한 거주지가 된다.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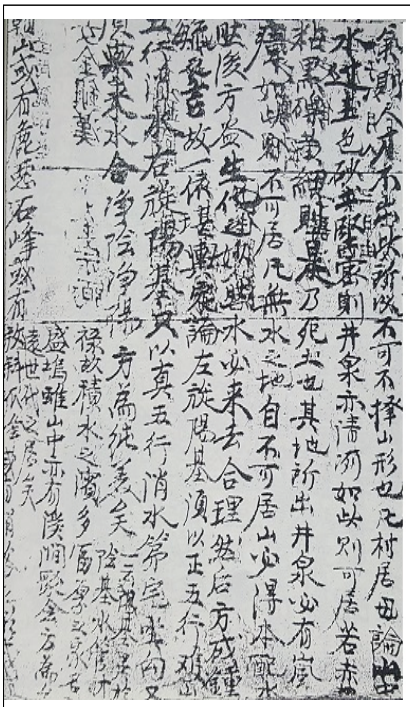
거주지를 정할 때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문장 앞쪽 서술은 거의 똑같고 중간 이후는 인용문에서처럼 큰 차이를 보인다.15) 〈잠옹본〉은 물이 들어오는 방위를 집터의 방향과 비교하여 그 길흉을 판단하는 풍수설의 주장을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덕유본〉은 풍수설을 논외로 하고 재물에는 물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집터의 선정에 물의 방향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제는 같으나 논의의 근거제시와 방향이 크게 다르다.

13) 李重煥 저, 南夏行 필사,『擇里志』, 김영진 소장. "山必得本配水, 然後方盡生化之妙. 然水必來去合理, 然後乃成鍾毓之吉. 故一依堪輿家定論, 左旋陽基, 須以正五行、雙山五行消水; 右旋陽基, 只以眞五行消水. 第宅坐向, 又須與來水合淨陽淨陰, 方爲純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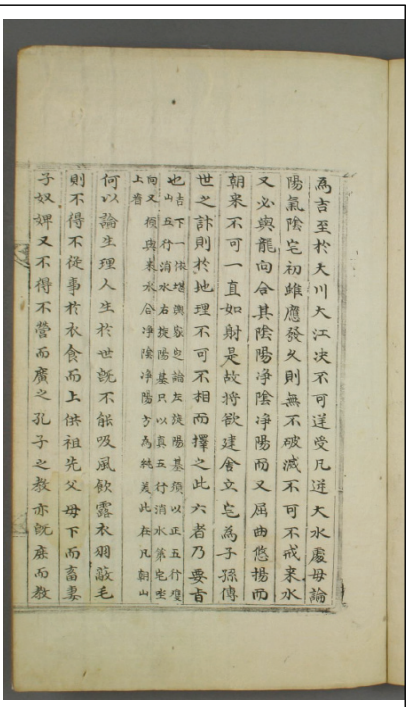
14) 李重煥 저,『八域可居處』, 규장각 소장. "凡無水之地, 自不可居. 山必得本配水, 然後方盡生化之妙. 然水必來去合理, 然後方成鍾毓之吉. 此有堪輿家書, 姑不具論. 然陽基異於陰宅. 水管財祿, 故積水之濱, 多富厚之家·名村盛塢. 雖山中, 亦有溪澗聚會, 方爲世代久遠之居."

15) 〈잠옹본〉의 내용을 개정본 계통인 〈상백본〉에서는 頭註로 附記했고, 〈와세다본〉과 〈고려대본〉『택리지』(대학원 B10 A3)에는 「地理」 본문 끝에 小字雙行으로 "吉下'一依堪輿家定論, 左旋陽基, 須以正五行雙山五行消水; 右旋陽基, 只以眞五行消水. 第宅坐向, 又須如來水合淨陰淨陽, 方爲純義.' 此在凡朝山上看."의 내용을 첨부하였다. 필사자가 초고본과 대조하여 읽고 그 차이점을 인식하고 다른 내용을 附記한 것이다.

■ 〈고려대 신암문고본〉과 〈와세다본〉『택리지』



〈도판1〉〈고려대 신암문고본〉『東國山水誌』
(신암 B10 A3G)



〈도판2〉〈와세다본〉『택리지』

「卜居論·地理」 항목에서 "堪輿家의 定論"을 다룬 내용을 초고본과 개정본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사례이다. 초고본 계열인 〈도판1〉에서는 문장 끝에 '一云'이라 하여 小字雙行으로 개정본 내용을 기재하였고, 개정본 계열인 〈도판2〉에는 「地理」 본문 끝에 小字雙行으로 초고본 내용을 기재하였다.

인용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덕유본〉의 "이것을 다룬 감여가의 책이 있으므로 굳이 자세하게 논하지 않겠다[此有堪輿家書, 姑不具論.]"이다. 초고본에서는 풍수설의 관점을 인용했었는데 개정본에서는 전문적 풍수설은 풍수 전문서에 맡기고 나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겠다는 서술상 방향의 전환을 직접 밝히고 있다. 초고본에서 풍수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썼던 글을 삭제하고 그런 내용은 논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고, 그 사실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서술상의 변화는 편집에 개입한 필사자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준이나 성격이 아니다. 성호 이익의 편지에서 알 수 있는 사실과『택리지』이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통해, 이중환은 초고본을 먼저 주변 지식인들에게 공개하고 그 이후 발견한 문제점과 지인들의 제언 등을 반영하여 개정본을 만들었다는 결론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

3. 초고본의 조사와 특징

2장에서 사례로 든 〈잠옹본〉은 초고본의 대표적 이본이고, 〈덕유본〉은 개정본의 대표적 이본이다. 위에서 인용한 行文은 이 두 개 이본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이본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이본이든지「卜居論·地理」항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장은 〈잠옹본〉의 문장을 택하지 않았으면 〈덕유본〉의 문장을 택하고 있다. 그에 따라『택리지』이본 전체는 초고본과 개정본의 두 계통으로 나뉜다. 책의 제목과 편차의 차이, 그 밖의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본 텍스트를 크게 둘로 나누는 근본적인 기준이다. 이제 초고본과 개정본의 차이와 특징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잠옹본〉과 같이 초고본 계통에 속하는 이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이본을 교감한 결과 위에서 예를 든 〈잠옹본〉과 〈연세본〉, 〈칠리본〉, 〈소화본〉, 〈목석본〉, 〈청허본〉, 〈성산본〉, 〈동양본〉이 초고본에 속한다. 그밖에 〈고려대 신암문고본〉『東國山水志』와 〈오사카시립도서관 소장본〉『팔역가거지』도 초고본 계통이다. 또한『鵝州雜錄』에 초록되어 있는『士大夫可居處』와 서유구『임원경제지』의 일부인『相宅志』에도『택리지』가 대거 수록되어 있는데 그 역시 초고본이다. 초고본은 검토한 이본 가운데 대략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본 중에는 초고본이 더 있을 테고 그 결과에 따라 비중은 차이가 날 것이다.

초고본과 개정본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례를 앞에서 들었으나 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사례를 몇 가지 찾아서 초고본이 지닌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에는「卜居論·生利」항목에 실린 내용을 비교한다.

초고본: 〈성산본〉

開城府는 승천포를 앞에 바라보이는 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곧 한강의 하류로 황해도의 수로와 통한다. 한강에 비해 더욱 깊고 넓으나 다만 개성부 읍치와 조금 멀어 40여 리에 이른다. 승천포 하류는 보련강으로 남쪽으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보련강 북쪽에서 따로 한 줄기 물이 와서 모이니 개성 오관산 뒤쪽을 흐르는 물이다. 황해도 평산의 席灘이 이천과 신계의 물과 합하여 커져서 강이 되고 강음을 거쳐 개성의 서쪽에 이르러 꺾어져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물이 梨浦와 錢浦, 碧瀾渡, 昌陵이 되어 보련강으로 들어간다. 이 물을 통칭하여 後西江이라 부른다. 후서강은 개성부까지 30리도 채 떨어지지 않은 데다 조수가 통한다. 옛날 왕씨가 개성에 도읍을 세웠을 때에는 팔도의 공물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지금은 개성의 富商大賈들이 강기슭에 저택을 많이 지어 놓고 다른 도와 배로 교통하여 얻는 이익이 은진보다 못하지 않다.16)

개정본: 〈광문회본〉

개성부에는 水口門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거리에 東江이 있어 조숫물과 통하여 조운선이 정박하는 곳이었다. 고려가 망한 뒤로 조수가 물러가 이르지 않으니 지금은 얕은 개천이라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 昇天浦는 개성부와 멀리 40여 리나 떨어져 있다. 지금은 오로지 後西江이 개성부와 30리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서 다른 도와 배가 통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 배가 크면 바다로 나가 멀리서 장사하고, 배가 작으면 강을 따라서 바다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북쪽으로는 江陰縣까지 가고, 서쪽으로는 延安까지 가고, 동쪽으로는 한강과 통한다.17)

초고본의 서술 분량이 개정본의 거의 곱절에 이르므로 내용의 차이를 떠나 양적으로 차이가 크다. 〈성산본〉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초고본 계통의 사본에 거의 모두 비슷하게 실려 있다. 물론 필사자에 따라 글자의 차이는 조금씩 있고, 이것은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

16) 이중환 저, 金鎭夏 필사, 『八域可居誌』, 필자 소장. "開城府則昇天浦爲面前水, 卽漢江下流, 通黃海道水路也. 比漢江尤深濶, 而但距府治稍遠, 至四十餘里. 昇天下流爲寶蓽江, 南入于海, 而自寶蓽北, 別有一水來會, 卽開城五冠山後水也. 黃海平山席灘, 合伊川新溪之水, 大而爲江, 歷江陰, 從開城西, 折而南下, 爲梨浦錢浦碧瀾渡昌陵, 入于寶蓽, 通稱後西江. 距府西不滿三十里, 且通潮汐. 昔王氏建都時, 八道饋餉皆萃於此. 今則開城富商大賈多治第宅於江岸, 通外道船利, 不下恩津."

17) 이중환 저, 최남선 교열, 『擇里志』(활자본), 朝鮮光文會, 1912. "開城府則水口門外十里爲東江, 通潮爲漕運停泊之所. 國亡後, 潮退不至, 今爲淺川, 舟船不至. 昇天浦則距府遠至四十餘里, 今惟後西江距府不滿三十里, 通外道船利. 舟大則出海遠賈, 舟小則循江出入, 北至江陰, 西至延安, 東通漢江矣."

성의 水運을 설명한 내용으로 초고본은 개성 주변의 물줄기를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개정본은 수계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줄이고 수운과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술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초고본이 지리적 현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든 두 가지 사례에서는 초고본의 내용이 풍수설이나 지리 현상에 더 많은 분량을 제시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 경향을 초고본 전체의 경향과 특징으로 바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몇 대목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교감을 통해 찾아진 초고본 계통 이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초고본 계통의 이본은『택리지』이본 가운데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이 많다. 당연한 말이지만, 개정본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 베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초고본 가운데 초기본이 더 많다. 대체로 이중환이 초고본을 완성하고 발문을 쓴 이후부터 傳寫本이 유통되기 시작하여 아무리 늦어도 1776년 이전에 필사한 사본이 다수이다.

초고본이 1776년 이전에 필사되었다는 근거로는「卜居論·人心」항목과 기타 여러 곳에서 충청도 尼山의 지명이 그대로 노출된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지금의 논산시 노성면 일대의 옛 지명인 尼山은 제22대 임금 正祖의 본명이 이산(李祘)이었기에 世孫에 봉해진 뒤 이름을 피휘하여 尼城으로 개칭하였다가 어명의 발음을 '이성'으로 변경한 1800년 이후 다시 魯城으로 변경하였다. 18세기 지도의 제작시기를 파악할 때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정조 어명과 관련한 지명의 변천은『택리지』의 필사 시기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18]

위에서 초고본으로 제시한 이본 12개 가운데 9개가 모두 尼山을 썼고, 나

18) 안대회,「正祖 御諱의 개정: '이산'과 '이성'—『규장전운』의 편찬과 관련하여」,『한국문화』제52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10, 95-121면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동안『택리지』사본이 필사된 시기를 추정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머지 〈칠리본〉은 尼城으로, 연세본은 魯城으로 수정하였다. 『相宅志』에는 나오지 않는다. 9개 사본은 1776년 이전 필사본, 〈칠리본〉은 1776년에서 1800년 사이의 필사본, 〈연세본〉은 1800년 이후 필사본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다만 1800년 이후에는 尼山이란 표기가 일부 가능해졌으므로 1776년 이전에 필사된 9개 본이 나중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해도 대체로 이 등식은 성립하므로 초고본에서는 1776년 이전 필사본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초고본은 대부분 정조가 왕위에 오른 1776년 이전에 필사되었을 것이다.

이밖에 「卜居論·山水」 '溪居'에 나오는 "陽·利山"[19]과 결론(〈광문회본〉의 「總論」)에 나오는 "算員"[20]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조 치세에는 '이산'을 기휘하고, 이산(李祘)의 '祘' 字와 같은 글자인 '算' 字를 기휘하여야 했다. 기휘가 반영된 사본은 대부분 개정본 계통이고, 利山과 算員을 그대로 쓴 〈잠옹본〉, 〈성산본〉, 〈동양본〉, 〈연세본〉, 〈목석본〉, 〈청허본〉 등의 이본은 모두 초고본이다.

둘째, 초고본으로 간주한 이본은 하나의 계통으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뚜렷한 하나의 계통임에는 분명하나 거기에도 두세 가지의 서로 다른 파생본이 나타난다. 초고본 사이에도 작은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1762년 이전에 편집이 완료된 〈『아주잡록』본〉 『士大夫可居處』는 초고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필사본이다.[21] 그리고 남하행(1697-1781)이 친필로 쓴 〈잠옹본〉은 위에서 살펴본 정조 어명의 기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아무리 늦어도 1776년 이전에 필사되었다. 또 〈소화본〉은 필

19) 〈잠옹본〉, 〈성산본〉, 〈동양본〉, 〈목석본〉, 〈청허본〉에는 陽利山으로 되어있고, 〈연세본〉에는 陽利山이 利陽山으로, 〈칠리본〉에는 歸山村으로, 〈소화본〉에는 陽利諸處로 되어있다. 〈와세다본〉에는 '山' 앞에 '等'이 더 있다.

20) 〈잠옹본〉, 〈성산본〉, 〈동양본〉, 〈연세본〉, 〈목석본〉, 〈청허본〉에는 算員으로 되어있고, 〈칠리본〉, 〈소화본〉에는 計士로, 〈상백본〉에는 籌員으로 되어있다.

21) 이도훈 외, 앞의 글에서 초기본으로서 〈『아주잡록』본〉 『士大夫可居處』의 특징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편, 연세대에 소장된 48책본 『稗林』에도 『擇里志』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초록본은 〈『아주잡록』본〉 『士大夫可居處』와 동일한 계통의 사본이다. 최인실, 앞의 글에 〈『稗林』본〉 『擇里志』의 존재와 시기를 추정하였으나 〈『아주잡록』본〉과의 관련성 및 후대 필사본임을 밝히지 못했다.

사 시기가 19세기 이후로 초고본의 원형을 충실히 간직한 동시에 일부는 개정본의 요소까지 반영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3종의 사본은 여타의 초고본과 비교하면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그 하나의 사례가「八道論·全羅道」항목이다.

초고본:〈소화본〉
태조는 견훤과 그 아들을 평정한 뒤로 백제 사람을 미워하였다. 車嶺 이남은 산의 형태와 물의 형세가 모두 [개경을] 등지고 흐르고 북쪽에 읍을 하지 않는 탓이라 생각하여 차령 이남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22)

개정본:〈동양본〉
태조는 견훤과 그 아들을 평정한 뒤로 백제 사람을 미워하였다. 車嶺 이남은 물이 모두 [개경을] 등지고 흐르는 탓이라 생각하여 차령 이남 사람을 등용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23)

초고본 중에〈『아주잡록』본〉『士大夫可居處』와〈잠옹본〉,〈소화본〉,〈칠리본〉에서만 이런 行文이고, 다른 초고본은 개정본과 같은 行文을 보인다. 앞의 문장은 전라도 지역이 산의 형태와 물의 형세가 모두 개경을 등지고 흘러서 북쪽의 개경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형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나머지 초고본은 모두 개정본과 같은 行文을 보이는 것과 차이가 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초고본 중에서〈『아주잡록』본〉『士大夫可居處』는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본 형태를 보이고,〈잠옹본〉은 성호 이익의 제자인 남하행이 스승인 이익의 사본을 필사한 것이다.〈소화본〉은 성호 집안에 소장되어 오던 사본으로 전해오므로 이 역시 이익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 전사했을 것이다. 모두 이중환이 초고본을 쓰고 가장 먼저 이익에게 보여주어 1751년 5월에 서문을 받았을 때 베껴둔 사본을 전사한

22) 이중환 저,『小華誌』,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及平甄氏, 惡百濟人, 以爲車嶺以南山形水勢皆背走不拱北, 遺命勿用車嶺以南人."
23) 이중환 저,『八域可居誌』, 일본 東洋文庫 소장. "及平甄氏, 惡百濟人, 以爲車嶺以南水皆背走, 遺命勿用車嶺以南人."

것이다.

그로부터 1년과 2년 뒤인 1752년 4월(목성관), 1752년 11월(목회경), 1753년 3월(정언유, 이봉환)에게서 서문과 발문이 나온 것으로 보아 대략 1년 사이에 조금 더 수정한 초고본을 제공하여 서문과 발문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초고본이라 해도 이익에게 건넨『택리지』사본과 목성관, 목회경, 정언유, 이봉환에게 건넨『택리지』사본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위의 차이는 말해준다. 실제로 〈『아주잡록』본〉『士大夫可居處』와 〈잠옹본〉은 글자나 내용에서 개정본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초고본과도 차이가 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그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초고본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차이 외에 어떤 외형적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크게 보아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제시할 특징은 대부분의 초고본에는 篇目이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택리지』에는「四民總論」,「八道總論」(평안도-경기도),「卜居總論」(지리-산수),「總論」(四民總論)의 篇目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卜居論·山水」에는 名山名刹, 四郡山水, 溪居 등의 더 세밀한 篇目이 달려 있다. 앞뒤에 실려있는 序跋을 제외하고 이들 편목이 초고본 계통의 사본에는 거의 달려 있지 않다. 이들 편목은 개정본 중에서도 〈광문회본〉 계열의 이본에 주로 달려 있다. 초고본 중에서 〈연세본〉과 〈칠리본〉, 〈소화본〉에 제목이 달려 있으나 이들 사본은 초고본을 후대에 전사하는 과정에서 개정본 계통에 달린 편목을 반영하여 제목을 단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편목의 실상은 〈광문회본〉 계통과는 상당히 달라서 篇目의 명명 자체가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편목이 달려 있지 않다는 특징이 바로 이들이 초고본으로서 초기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다음에 제시할 외형적 특징은 序跋의 존재이다.『택리지』전체 이본 가운데 이익의 서문이 실린 이본은 〈잠옹본〉과 〈목석본〉, 〈소화본〉 3종이다. 모두 초고본이다. 이익에게 서문을 받을 때 전사한 사본으로 초고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사본임을 서문이 증거한다. 또 타인의 서발을 싣지 않은 채 이중환의 발문만을 달고 있으면서 편목이 없는 사본 가운데 초고본이 많

다. 정언유의 서를 비롯하여 이중환과 이봉환, 목성관, 목회경의 발문이 수록된 사본은 대체로 개정본 계통에 속한다. 초고본의 외형적 특징은 이렇게 정리된다.

4. 개정본의 변화와 특징

이번 장에서는 초고본에서 개정본으로 바뀐 내용을 분석하여 개정본의 특징을 살펴본다. 현재 남아있는 이본에는 초고본보다 개정본이 더 널리 퍼져 있다. 저자의 수정을 통해 저술 의도를 더 선명하게 반영한 최종본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본을 읽을 때 그것이 초고본인지 개정본인지 그 차이를 구별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발이나 편목 등의 외형에서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명확한 기준점은 아니다. 또 개정한 사실을 밝힌 서문이나 발문을 써둔 것도 없다. 분명 크고 작은 변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 20세기 이전에도『택리지』에 초고본과 개정본의 서로 다른 계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식하지도 못했다. 20세기 이후 학계에서도 그와 같은 계통상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외형상 손쉽게 분간되는 차이가 아니라 이본의 세밀한 교감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청허본〉의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고본 가운데 독특한 사본에 속한다. 서론[四民總論]과 결론[總論]이 맨 앞에 함께 수록된 점에서 독특하나 篇目이 달리지 않았고, 이중환의 발문 외에 서발문이 하나도 실리지 않은 점 등 초고본의 외형을 지니고 있다. 특이한 점은 개정본의 내용이 상당한 분량에 이르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경우 본문의 사이나 난외에 작은 글씨로 써놓았다. 필사자가 개정본의 존재를 인식하지는 못했으나『택리지』이본 사이에 서로 다른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포착했음을 보여준다.[24]

이본을 세밀하게 교감한 결과 초고본과 개정본에서 변화와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글자나 문구의 차이처럼 미미한 것도 있으나 서술 전

24) 〈청허본〉은 앞표지 안쪽에 "乙亥仲秋 淸虛堂藏"이란 소장기가 쓰여 있다. 여기서 을해년은 1755년이나 1815년으로 추정되는데 필자는 1755년이 더 가깝고, 본문 외에 글씨는 뒤의 소장자가 加筆한 것으로 본다.

체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 변화도 있어서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표현상 차이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택리지』를 세밀하게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서로 비교하여 검토하는 독법이 필요하다.[25] 앞에서 이미 두 가지 사례를 검토하여 초고본과 개정본 사이에 벌어진 차이와 변화를 확인하였으나 몇 가지 기준을 세워 더 비교하고 분석하여 이중환의 개정작업이 가져온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논지를 정연하게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설명이 복잡하고 조리가 부족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은 초고를 분명하고 세련된 논지로 서술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때로는 내용이 단순해져 분량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어떤 경우에는 서술량이 더 늘어나기도 하였다. 그 사례로는「卜居論·山水」항목을 꼽을 수 있다. 전라도 마이산의 산맥이 어떻게 뻗어 가는지를 설명한 대목이다.

초고본:〈동양본〉

馬耳山이 또 세 줄기로 나뉘어 하나는 거꾸로 가서 鎭岑의 계룡산이 되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金溝의 母岳이 되고, 하나는 서남쪽으로 가서 長城의 蘆嶺이 되고, 하나는 남쪽으로 가서 담양의 秋月山이 된다. 거기에서 그대로 다시 일어나 나주의 목포 이남의 여러 산이 되었다가 또 동서로 나뉘어 뽑혀 나온다. 서쪽에서는 영암에서 그치고 동쪽에서는 진주 蟾津의 남쪽에서 그친다. 또 해남으로부터 천 리 바다를 건너 제주 한라산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라산 줄기가 또 바다를 건너 琉球國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26]

개정본:〈취원본〉

마이산의 서쪽 줄기와 북쪽 줄기는 鎭岑과 萬頃에서 멈춘다. 그중에서 가장 긴 산줄기가 蘆嶺에서 세 개의 산맥으로 갈라지는데 서쪽 줄기와 북쪽 줄기는 扶安과 務安을 거쳐서 서해의 여러 섬으로 흩어진다. 가장 긴 산줄기가 동쪽으로 가서 담양의 추월산이 되고, 추월산에서 서쪽으로 뻗어가 영암의 月出山이 된다.

---

25) 곧 출간할『정본 택리지』, 휴머니스트, 2018에는 이본 간 교감 내용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26) 이중환 저,『팔역가거지』, 일본 동양문고 소장. "馬耳又分三派, 一倒行爲鎭岑鷄龍, 一西行爲金溝母岳, 一西南爲長城蘆嶺, 一南行爲潭陽秋月山. 仍撥作羅州木浦以南諸山, 而又東西分拽, 西止於靈巖, 東止於晉州蟾津之南. 又自海南渡海千里爲濟州漢挐山. 而或云: '漢挐又渡海爲琉球國', 此不可不知也."

> 월출산에서 또 동쪽으로 뻗어가 광양 白雲山에서 멈추는데 산맥의 굴곡이 갈 지[之] 자 모양과 같다. 월출산 한 줄기가 따로 남쪽으로 뻗어가 海南縣 綰頭里를 거쳐서 남해의 여러 섬이 되고, 천 리 바다를 건너 제주 한라산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라산 줄기가 또 바다를 건너 유구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거리가 대단히 가깝다는 사실은 알겠다.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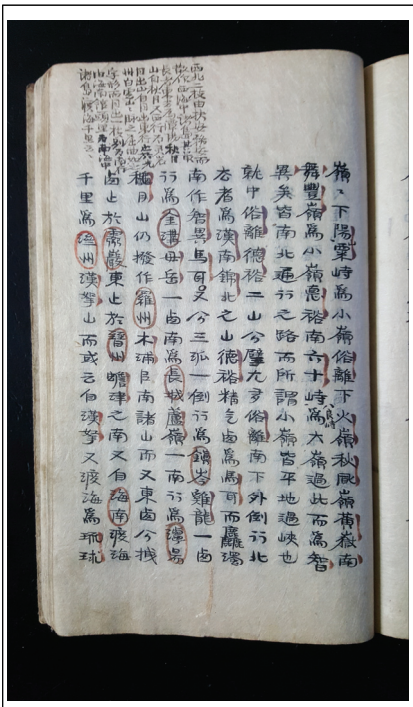
마이산 산맥이 세 줄기로 나뉘었다가 남쪽에서 다시 나뉘어 한라산을 넘어 유구까지 뻗어가는 산줄기를 설명하였다.28) 초고본인 〈동양본〉에서 마이산이 세 줄기로 나뉘었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다섯 줄기로 나뉜 것처럼 서술하여 모순이다. 또 한라산 줄기가 유구까지 뻗었다고 서술하고 그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개정본에서는 모순된 서술을 바로잡았고, 한라산 줄기에서 유구가 나왔다는 사실에 의문을 표하여 객관적 거리를 두었다. 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논지가 정연해졌고, 판단이 객관성을 얻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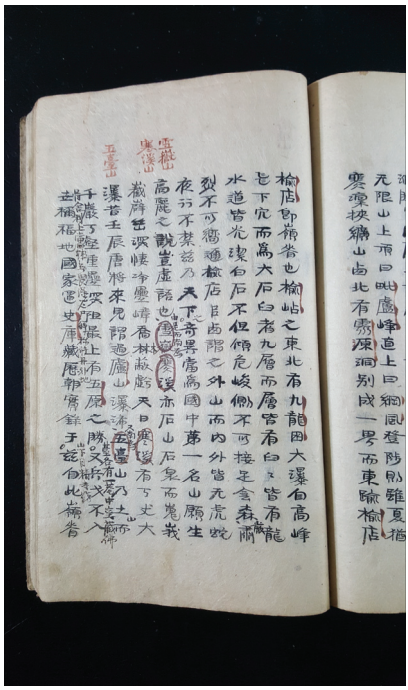
27) 이중환,『擇里志』, 규장각 소장. "西北二枝止鎭岑·萬頃. 其最長者, 自蘆嶺分三派, 西[北二]枝由扶安·務安而散作西海中諸島. 其最長者, 東去爲潭陽秋月山, 自秋月又西行爲靈巖月出山. 自月出又東行, 止於光陽白雲山, 山脈之屈曲如之字形. 而月出一枝別爲南行, 由海南縣綰頭里爲南海中諸島, 渡海千里爲濟州漢拏山. 而或云: '漢拏又渡海爲琉球', 此不可知也, 然盖知其甚邇也."

28) 한편, 〈덕유본〉과 〈소화본〉에는 이 대목이 "馬耳西北三枝, 一止於鎭岑·公州, 一止於沃溝中間, 一枝自金溝而止於萬頃. 其最長者, 自蘆嶺脈分三派, 西北二枝, 一止於扶安, 南(一)止於務安, 而散作西海中諸島. 內藏以上南枝, 其最長者, 南去爲潭陽秋月山, 自秋月山以前脈南行爲無等山. 自無等南行, 而又折爲東行, 止於光陽白雲山, 自無等南行, 西得一枝爲靈巖月出山. 無等正南一枝, 直南走爲天冠山於長興南海上. 山脈之屈曲如之字形. 而月出一枝別爲南行東走爲康津, 止於長興界, 西得一枝, 又爲海南, 지어綰頭里爲南海中諸島, 渡海千里爲濟州漢拏山. 而或云: '漢拏又渡海爲琉球', 此不可知也, 然盖知其甚邇也."로 되어있어 상당히 다른 내용이 첨가되어있다.

■ 〈청허본〉『可居處』



〈도판3〉



〈도판4〉

초고본에 속하는 청허본『可居處』, 수경실 소장 필사본. 사진은「卜居論·山水」항목으로, 〈도판3〉은 전라도 마이산의 산맥이 어떻게 뻗어가는지를 설명한 대목이고, 〈도판4〉는 '명산명찰' 가운데 강원도 오대산을 설명한 대목이다. 본문은 초고본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난외와 본문 사이에는 작은 글씨로 개정본의 내용을 써놓았다. 초고본과 개정본의 차이를 밝힌 사례로『可居處』에는 십여 군데에 이와 같은 차이를 밝혀 놓았다.

두 번째로, 내용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서술 방법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예컨대,「卜居論·生利」항목에서도 초고본을 대폭 개정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선박의 운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네 지역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 초고본과 개정본이 서술하는 방법에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곳 네 지역은 한양과 한강 상류, 강경, 김해 칠성포 이렇게 네 군데 포구로 초고본에서는 네 포구를 한

자리에 모아서 서술하고, “이 네 지역이 최상으로 나머지 포구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此四處爲上, 餘俱不及於此.]”라는 총괄하는 평가를 내렸다.[29] 반면에 개정본에서는 네 군데 포구를 한 자리에 따로 뽑아 서술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포구를 설명하는 자리에 분산하여 서술하였다. 예컨대, 은진의 강경포구를 논한 부분은 충청도의 船利를 설명하는 자리에, 김해의 칠성포는 경상도의 船利를 설명한 자리에 포함시켰다. 네 군데를 각 지역의 다른 포구와 차별을 두어 뽑아서 서술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에 따라서 앞에서 인용한 총괄하는 평가의 표현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개정의 방향에서는 그 우열을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는 내용을 크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卜居論·山水」항목의 명산과 명찰을 논한 부분은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명산의 하나로 강원도 오대산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초고본과 개정본 사이에 일어났다.

초고본: 〈오사카본〉『팔역가거지』

가장 높은 곳에는 빼어난 경치를 가진 다섯 개의 언덕[原]이 있다. 또 전란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상에서 복지라고 칭송하였다.[30]

개정본: 〈와세다본〉

가장 높은 곳에는 빼어난 경치를 가진 다섯 개의 臺가 있다. 대마다 암자가 하나씩 있는데 中臺의 上院寺에는 부처의 眞身舍利를 보관하고 있다. 청주 사람 韓無畏가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는데 연단법을 수련하는 福地로서는 이 산이 제일이

29) 초고본 계열인 〈잠옹본〉, 〈연세본〉, 〈목석본〉, 〈소화본〉, 〈청허본〉, 〈성산본〉에는 “一國之中, 惟漢江最大而源遠, 受潮水多. 東南則淸風之黃江, 忠州之金遷·木溪, 原州之興元倉, 驪州之白涯, 東北則春川之牛頭, 狼川之元巖, 正北則漣川之澄波渡, 互相通船, 幷爲商船貰脫之所. 而惟漢陽左右通海峽之利, 東西江都輸一國船運之利, 而多射利致富之人, 惟此爲最. 其上流鐵原之澄波渡, 春川之牛頭(首)村, 原州之興元倉, 忠州之金遷, 皆商船聚會轉販之所. 然江船少, 不能出海, 綰利少, 然旣五(衆)水都會, 且密邇京城, 而受陸海之貨, 此爲第一. 次則恩津·江景津, 居忠·全二道海陸之間, 爲錦南野中一大都會. 海夫峽戶皆於此出物交易, 每春夏漁採時, 腥臭滿村, 巨舫小艓日夜如堵墻排立於汊港之間, 一朔六大市, 而委輸遠近之貨物, 自不下漢陽東西江矣. 次則金海七星浦, 居慶尙一道之水口, 盡管南北海陸之利, 公私皆以販鹽, 大取贏餘(羨). 此四處爲上, 餘俱不及於此. 此乃我國水道船利之大略也.”로 되어있다.

30) 이중환,『팔역가거지』, 오사카시립도서관 소장 사본. “最上有五原之勝, 又兵戈不入, 世稱福地.”

라고 칭송하였다. 예로부터 전란이 들어오지 않는다.[31]

앞의 내용은 초고본 가운데 〈청허본〉과 〈목석본〉, 〈동양본〉, 〈성산본〉, 〈오사카본〉『팔역가거지』에 실려있다.[32] 오대산에는 다섯 개의 臺가 있다는 사실과 전란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 복지로 평가된다는 내용 두 가지로 단순하게 구성되었다. 개정본에는 앞의 사실을 이어서 두 가지 삽화가 첨가되었다. 하나는 상원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관된 것과 득도한 도사 한무외의 삶과 그의 평가이다. 두 개의 삽화는 빠진다 해도 오대산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하는데 무관하다. 하지만 불교적 도교적 전설 두 개의 삽화를 개정본에 새로이 추가하였다.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까닭이다. 이중환은 지역의 서술에 지리적 조건이나 경제적 상황 이상으로 문화적 요소나 전설이 해당 지역의 특징을 부각하는데 핵심적 요소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33] 이런 태도는 유가 지식인으로는 매우 특별하다. 개정본의 일부 사본에서는 불교적이거나 도교적인 내용이라 유가적 사유에 위배되므로 배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중환 자신은 오히려 그런 것이 지역의 묘사에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정본에서 이런 내용을 보완한 것은 이중환의『택리지』서술태도에 잘 부합한다.

한편, 오대산을 서술하기에 앞서 금강산을 서술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초고본 〈청허본〉과 〈목석본〉, 〈동양본〉, 〈성산본〉, 〈오사카본〉『팔역가거지』에서는 전체 풍경을 개괄하여 "천 개의 층계와 만 개의 굽이에서 기이한 승경이 첩첩이 나오고, 아침에는 구름, 저녁에는 산안개가 퍼져 풍경이 끝이 없다"[34]라는 원문 16자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그런데 개정본에서는 원문 224자로 서술하여 분량이 15배 정도로 확대되었다.[35] 추가된 내용을 살펴

31) 이중환,『택리지』坤卷, 와세다대학 소장 사본. "最上有五臺之勝, 臺各有一菴, 中臺藏佛骨舍利. 上黨韓無畏得道尸解, 而稱修丹福地, 以此山爲第一. 自古兵戈不入."
32) 초고본 가운데 〈잠옹본〉과 〈연세본〉, 〈칠리본〉, 〈소화본〉, 〈고려대 신암문고본〉『東國山水志』에는 개정본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33) 안대회, 「『택리지』의 口傳 지식 반영과 지역전설 서술의 시각」,『대동문화연구』제93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41-74면.
34) 이중환,『팔역가거지』, 오사카시립도서관 소장 사본. "千層萬曲, 奇勝疊出, 朝雲夕嵐, 光景無限."

보면, 사찰을 묘사하는 불교유적과 설화를 포함하여 양사언의 기이한 전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오대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교적·문화적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다름 아닌 금강산의 묘사임을 고려한다면 초고본은 지나치게 간단한 평이다. 개정본에서 추가된 내용은 서술 분량에서도 적절하고, 지역전설과 문화의 설명에 가치를 둔 이중환의 인문지리 서술의 태도에 비춰서도 바람직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사실을 바탕으로 개정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초고본에서 수정한 사항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내용상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적으로 볼 때 「八道論」이 글자와 문구상의 변화가 많은 반면, 「卜居論」은 대대적인 내용의 추가와 서술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로 개정의 방향은 논지의 정연한 보완과 서술 방법의 개편, 그리고 내용의 대폭적 보완이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종합하여 말하면, 초고본보다 개정본이 더 풍부하고 논지가 정연하며, 서술의 논리적 측면이 강화되었다. 개정본은 대체로 저자의 국토지리를 보는 관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그렇더라도 초고본은 개정본의 내용이 등장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초고본과 개정본을 비교하여 읽는 것은『택리지』를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읽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셋째로 초고본 계통에 속하는 이본 사이에도 적지 않은 편차가 있는 것처럼 개정본 계통의 이본 사이에도 상당히 큰 편차가 보인다. 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자에 따라 반영하는 수준이 달랐기에 벌어진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택리지』이본을 계통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이본이 초고본이냐 아니면 개정본이냐 하는 차이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35) 이중환,『택리지』坤卷, 와세다대학 소장 사본. "正陽西有長安·表訓二寺, 內多元時及前朝古跡·宮壺所賜珍寶之物. 從正陽寺北入爲萬瀑洞, 有九潭之勝. 洞壁有楊士彦'蓬萊楓岳元化洞天'八大字, 字畫飛動如生龍活虎, 飄飄然有羽化之意. 內有摩訶衍·普德窟, 凌空架虛, 其結構如神功鬼力, 殆非意慮所到. 最上爲衆香城, 在萬仞峯巓, 地皆爲白石而有層級如鋪床卓. 上安一立石, 如佛像而無眉目, 是天成. 左右石床上, 又兩行排列小小石像, 而亦無眉目. 諺傳曇無竭住此. 前臨絶壑萬丈, 惟從西北角放遝以入. 萬峯皜如, 而水石潭洞, 曲曲奇巧, 不可盡記. 而名菴小寮籠絡其上, 殆如七金·人鳥·帝釋宮殿, 不似人間有者."

5. 맺음말

위에서 이중환이 『택리지』를 저술한 1751년 이후 사망한 해인 1756년 이전의 어느 시점까지 초고본의 내용을 수정하여 개정본을 만들었다는 입론을 세우고, 그에 근거하여 방대한 이본의 형성과정과 이본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와 특징을 드러냈다. 입론을 세운 중요한 근거는 수십 종에 이르는 다양한 사본의 교감을 통한 차이의 발견이다. 이본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글자와 문구, 내용의 차이에는 일정한 흐름에 따른 변화가 보이고, 거기에는 필사자의 개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관된 질서가 있었다. 저자가 직접 텍스트에 개입하여 초고본을 수정하여 개정본을 냈을 때만이 그런 차이가 가능하다. 초고본과 개정본으로 분류한 이본군에서 그 차이를 찾아내 분석한 결과 그 차이가 적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여, 저자가 직접 개정했다는 입론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기한 입론과 논지전개의 결과로 『택리지』가 1751년 완결된 저작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암묵적 정론을 재고하고, 몇 년간의 개정작업을 통해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논리가 정연해졌으며, 풍수설이나 지리 현상의 자세한 설명을 줄이는 대신 인문적 요소가 더 풍부하고 합리적 서술이 두드러지도록 개정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그에 따라 현재 150종으로 확인한 많은 이본 텍스트에서 발생한 차이가 실제로는 초고본과 개정본의 전사에서 발생했다는 합리적 설명이 가능해졌다.

이 논문에서 새롭게 주장한 가설과 입증하고자 한 내용은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택리지』 텍스트 이해의 구도를 세우고 있다. 논지전개가 부족하거나 보완할 사실은 앞으로 새로운 자료와 논지전개를 통해 보강하고자 한다. 이 논문이 『택리지』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관련한 연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부록 : 교감 대상『택리지』이본 목록

	서명	소장처(자) 및 청구기호	약호	서지와 특징
1	『八域可居處』	규장각 古4790-55	덕유본	편목 있음(「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사민총론」). 서발 앞에 일괄: 정언유, 이중환 외 3명. 81장. 소장인: 德裕.
2	『擇里志』	김영진	잠옹본	편목 없음. 서: 이익, 발: 이중환.『臥遊錄』뒤에 수록. 潛翁 南夏行(1697-1781) 친필본. 41장.
3	『擇里志』	규장각 古915.1-Y58t	취원본	편목 없음. 서론: 택리지서, 발: 이중환 외 3명. 57장. 소장인: 翠園. 翠園은 睦昌明(1645-1695)의 호로 梅山 李夏鎭의 사위임.『성호사설』「生財」, 「糶糴」 수록. 平昌後人 壽春齋 1765년 필사.
4	『博綜誌』	규장각 奎 3742	금범본	편목 없음. 장서인: 留還堂, 海嶠. 錦帆 尹致羲 친필본. 장서각 소장『박종지』와 유사.
5	『震維勝覽』	규장각 古915.1-J563	상백본	편목 있음. 상하권. 서발문 없음. 필사자 주석. 장서각 소장『東輿彙覽』과 매우 유사.
6	『擇里誌』	연세대 도서관 915.1	연세본	편목 있음. 발: 이중환 외 2명. 「當難保身福地」 수록. 상하 2책.
7	『擇里誌』	연세대 칠리문고본	칠리본	편목 상세. 발: 洪重寅. 서론+결론 수록. 상하권. 자의적 수정이 많다. '人心' 맨 뒤.
8	『士大夫可居處』	국립중앙도서관 古2700-105	국립본	편목 없음. 서: 정언유. 발: 이중환 외 3명.『성호사설』「生財」, 「糶糴」 수록. 71장.
9	『東國八域志』	연세대 도서관 고서(III) 4294 0	목석본	편목 없음. 서: 이익, 발: 이중환. 93장. 필사기: 壬子流火節 木石畸人書于夙夜齋中.
10	『登覽』	수경실	등람본	편목과 서발 없음. 「卜居論」을 앞에, 「八道論」을 뒤에 배치함.
11	『可居誌』	수경실	청허본	편목 없음. 발: 이중환. 서두: 서론+결론 수록. 끝에 「當難保身福地」 수록. 乙亥仲秋淸虛堂藏.
12	『擇里誌』		광문회본	편목 있음(「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사민총론」). 활자본. 朝鮮光文會 1912년 발행. 근대 민족주의 의식 반영.

13	『八域誌』		고서본	편목 있음(「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사민총론」). 활자본. 朝鮮古書刊行會 1910년 발행. 서발 없음. 〈총화본〉과 매우 유사. 저본은 〈총화본〉임.
14	『卜居說』	국립중앙도서관 승계古2701-4	승계본	편목 없음. 발: 이중환. 55장. 필사기: 赤裳山下槐木書堂終篇.
15	『小華誌』	국립중앙도서관 성호古2700-81	소화본	편목 있음. 서: 이익, 발: 이중환. 건곤 2책. 장서인: 睦聖玟. 이익 집안 소장본으로 전해짐. 『성호사설』「生財」 부록.
16	『靑華漫錄』	국립중앙도서관 古2701-5	청화본	편목 없음. 서: 정언유, 발: 이중환 · 목성관 · 목회경. 권수제: 卜居說. 이익 『성호사설』「生財」 부록.
17	『擇里志』	와세다	총화본	편목 있음(「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사민총론」). 권수제: 總貨.
18	『擇里志』	와세다	와세다본	편목 없음. 발: 이중환. 乾 · 坤 2책. 장서인: 樂. 「當難保身福地」 수록. 서론+결론 수록.
19	『擇里志』	존경각 B16AB-0007a	존경본	이수봉 소장 『八域誌』와 매우 유사하고, 〈광문회본〉과 비슷한 점도 나타남.
20	『八域誌』	이규필	팔역본	편목 없음. 발: 이중환 · 이봉환 · 정언유 · 홍중인. 권수제: 士大夫可居處.
21	『八域可居誌』	안대회	성산본	편목 없음. 발: 이중환. 초고본. 星山 金氏 金鑌夏 乙卯(1855)년 필사기. 1809년에 필사 시작.
22	『八域可居誌』	동양문고	동양본	편목 없음. 발: 이중환. 초고본. 『增補山林經濟』의 부록.
23	『東國地理解』	프랑스 국립도서관 애산학보 3	언해본	편목 없음. 서: 정언유, 서론: 택리지서. 발: 이중환. 번역이 정확함. 개정본. 89장.

▮ 참고문헌

金約瑟,「星湖手寫本 擇里誌에 대하여」,『국회도서관보』제5권 4호, 국회도서관, 1968, 69-75면.
배우성,「擇里志에 대한 역사학적 讀法: 필사본 비교연구를 중심으로」,『한국문화』제33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4, 213-246면.
안대회,「正祖 御諱의 개정: '이산'과 '이성' —『규장전운』의 편찬과 관련하여」,『한국문화』제52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10, 95-121면.
_____,「『擇里志』와 조선 후기 지방 이해의 혁신 —浮浪하는 존재의 移住와 定住」,『한국한문학연구』제53집, 한국한문학회, 2014, 69-102면.
_____,「『택리지』의 口傳 지식 반영과 지역전설 서술의 시각」,『대동문화연구』제93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41-74면.
_____,「『택리지』의 篇目과 이본 계통의 형성」,『동방학지』제183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8 출판 예정.
李克誠 저, 장유승 외 역,『螢雪記聞』, 성균관대 출판부, 2016.
이도훈·김세호·임영길,「『擇里志』異本考」,『대동문화연구』제93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6, 99-134면.
임영걸,「조선 후기『擇里志』읽기 방식 —서발문 및 관련 저작을 중심으로」,『어문연구』제17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265-290면.
최인실,「『택리지』초기 필사본 추정을 위한 서지적 고찰」,『서지학보』제40호, 한국서지학회, 2012, 155-174면.

【Abstract】

Lee Jung-hwan's Revisions of *Taengniji* and the Development of Variants

Ahn, Dae-Hoe*

This study questions the general consensus in the academia that Taengniji by Lee Jung-hwan (1690-1755) was completed in 1751, and argues that the author made several revisions to the original edition up to the year of his passing in 1756. A letter written by Lee Ik to his close friend hints at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revised editions.

Dozens of variants were analyzed, and the identified differences cannot simply be explained as the result of having different transcriber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presented through a few case studies.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the variants, classified into original and revised, and gathered sufficient evidence that the author himself made revisions to the original edi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uthor's revisions enriched the content, systematized his logic, complemented his views on feng shui and geography while keeping explanations concise, and made the narrative more rational. Th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he 150 variants can be traced to differences in the transcription of the original and revised editions. The hypothesis and findings of this study offer a fresh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aengniji, and may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in related research.

Keywords: Lee Jung-hwan, *Taengniji*, original edition, revised edition, comparative analysis.

접수일: 2018.03.31 ‖ 심사일: 2018.04.11 ‖ 게재확정일: 2018.05.14

*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ersity.